관세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25.(수)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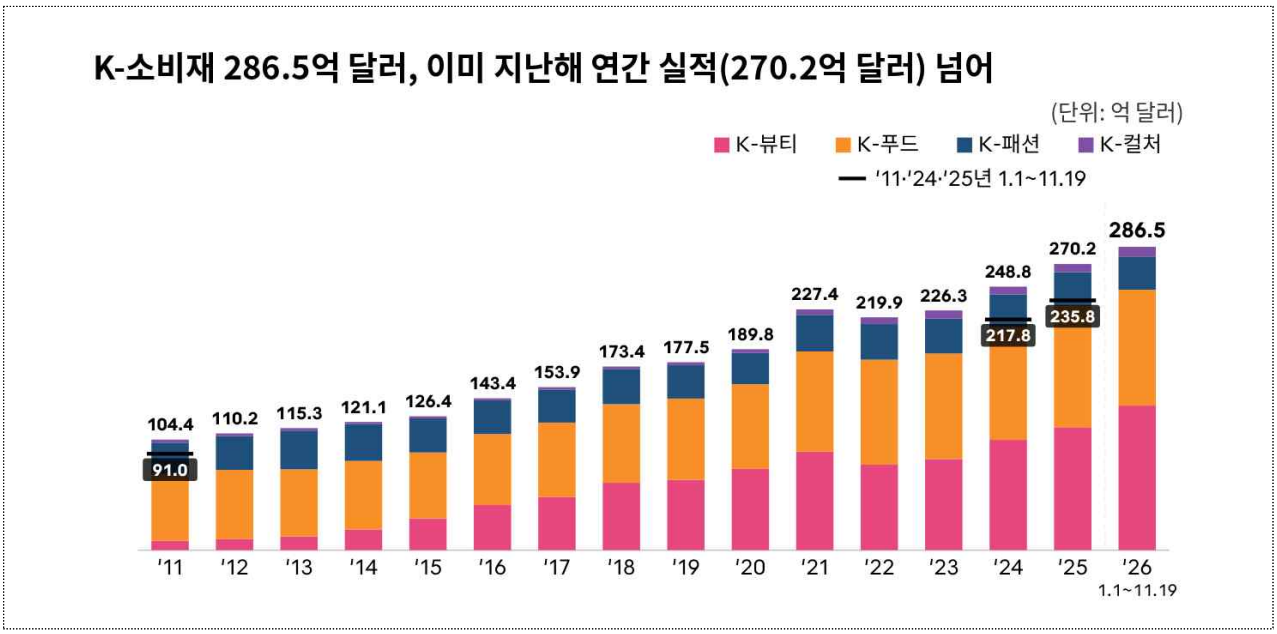
수출 1조 달러의 빛나는 조연, K-소비재

- K-소비재 수출 286.5억 달러(21.5%↑) 역대 최대
- K-소비재 수출의 90%는 중소·중견기업
- 유럽·북미 수출 확대…미국,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청은 25일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시점(1.1~11.19)의 K-소비재 수출을 집계한 결과, 뷰티·푸드·패션·컬처 등 K-소비재 수출이 28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270.2억 달러)보다 16.3억 달러 많은 규모로, 11월 19일까지의 실적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K-소비재 수출은 같은 기간 기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21.5%)은 지난해 연간 증가율(8.6%)을 크게 웃돌았다.

* 수출액 : (연간) '20년 189.8 → '21년 227.4 → '22년 219.9 → '23년 226.3 → '24년 248.8 → '25년 270.2억 달러, (1.1~11.19) '25년 235.8 → '26년 286.5억 달러(21.5%↑)



수출 1조 달러 시대, K-소비재 수출의 90%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1조 달러 달성 시점의 K-소비재 수출 286.5억 달러는 우리나라 수출이 5천억 달러를 처음 넘은 '11년 같은 기간(91.0억 달러)의 3.1배 규모다. K-소비재 수출기업은 27,618개사로 5.6%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증가했다.

* 수출기업 수 : (연간) '21년 23,116 → '22년 24,132 → '23년 25,496 → '24년 26,107 → '25년 27,897개사, (1.1~11.19) '25년 26,161 → '26년 27,618개사(5.6%↑)

K-소비재 수출 증가는 중소·중견기업이 이끌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은 259.9억 달러로 23.9% 늘어 전체 증가액(+50.7억 달러)의 98.8%를 차지했고, 수출액 비중도 90.7%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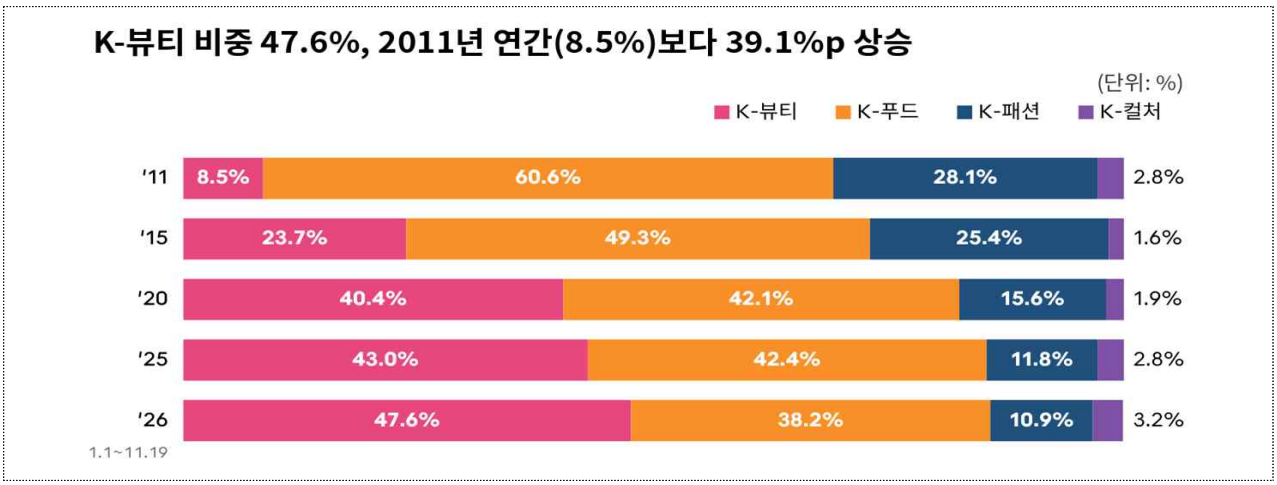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비중 : (연간) '22년 83.3% → '23년 85.2% → '24년 87.1% → '25년 89.1%, (1.1~11.19) '25년 89.0% → '26년 90.7%(+1.7%p)

K-뷰티 비중 47.6%로 확대…라면·음반도 호조

분야별로는 K-뷰티·K-푸드·K-컬처 3개 분야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K-뷰티는 136.5억 달러로 34.6%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116.1억 달러)도 이미 넘어섰고, K-소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6%로 '11년 연간(8.5%)보다 39.1%p 높아졌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기초화장품(+13.5억 달러) 등 화장품이 증가를 이끌었다.

* K-뷰티 비중 : (연간) '20년 40.4% → '21년 40.9% → '22년 36.7% → '23년 38.0% → '24년 41.8% → '25년 43.0% → ('26년 1.1~11.19) 47.6%(+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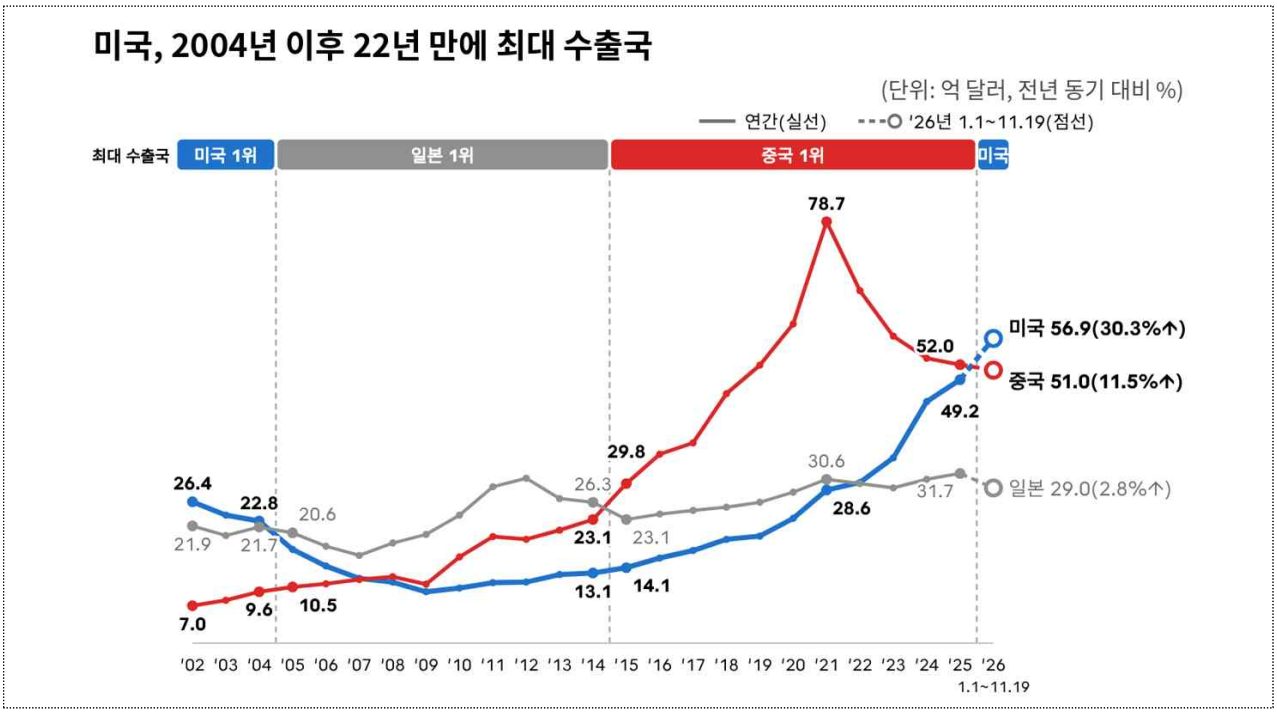
K-푸드는 109.4억 달러로 9.3%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기준 3년 연속, 연간 기준으로는 '25년까지 10년 연속 증가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라면(+3.6억 달러)과 수산물(+3.5억 달러)이 증가액의 75.8%를 차지했으며, 특히 라면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15.2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K-패션은 31.3억 달러로 14.0% 늘어 2년 연속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준 '13년(32.3억 달러) 이후 가장 많았다. 의류(+1.7억 달러)와 가방류(+1.3억 달러)가 증가를 이끌었으며, 특히 가방류는 35.4% 늘었다.

K-컬처 상품은 9.2억 달러로 36.5%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4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실적(7.7억 달러)도 이미 넘어섰으며, 음반이 4.2억 달러로 66.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유럽·북미 수출 확대…미국,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56.9억 달러(30.3%↑)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중국(51.0억 달러)을 앞질러, '04년 이후 22년 만에 K-소비재 최대 수출국이 됐다.



지역별로는 6개 대륙 모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유럽(52.3%↑)과 북미(30.2%↑)가 증가를 이끌어 두 지역의 비중이 38.7%로 높아졌다. EU 수출은 30.9억 달러로 55.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기준 7년 연속 증가했다.

* EU 수출액 : (연간) '19년 9.0 → '20년 9.4 → '21년 11.3 → '22년 12.0 → '23년 12.9 → '24년 16.8 → '25년 22.7억 달러, (1.1~11.19) '25년 19.9 → '26년 30.9억 달러(55.4%↑)

* 유럽·북미 수출액 비중 : (연간) '20년 22.0% → '21년 22.4% → '22년 24.1% → '23년 27.2% → '24년 31.3% → '25년 33.6% → ('26년 1.1~11.19) 38.7%(+5.1%p)

※ 분야별 상세 통계는 붙임 참조

< 참고사항 >

※ K-소비재 분류는 관세청 기준에 따라 품목분류코드(HSK)를 재분류한 것이므로, 타 기관이 집계한 K-소비재 수출액과 상이할 수 있음
※ K-소비재 포함 품목은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연도를 포함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 K-뷰티에는 화장품·미용제품 외에 미용기기를 포함
※ 역대 최대·연속 증가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같은 기간(1.1~11.19) 실적 기준
※ 통계표에 수록된 수치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 처리되어, 각 항목 값의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 수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며, 분야별 기업 수에는 여러 분야에 수출한 기업이 중복 집계
※ EU(27개국)와 ASEAN(11개국)은 현재 회원국 기준으로 과거 연도까지 소급해 집계함

담당 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경훈 (042-481-7790)
		담당자	사무관	김석원 (042-481-7845)
			주무관	이선호 (042-481-326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분야별 상세 통계

Ⅰ. K-소비재 수출 현황(총괄)

① 현 황

□ '26년 1.1~11.19 K-소비재 수출은 286.5억 달러(21.5%↑)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

○ 동기간 기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크게 확대

* 증가율 : (연간, 전년 대비) '24년 9.9 → '25년 8.6%, (1.1~11.19, 전년 동기 대비) '26년 21.5%

○ 지난해 연간 실적(270.2억 달러)을 이미 16.3억 달러 넘어섰으며, 수출 5천억 달러를 처음 넘은 '11년 동기간(91.0억 달러)의 3.1배

* 수출액 : (연간) '11년 104.4 → '25년 270.2억 달러,
(1.1~11.19) '11년 91.0 → '25년 235.8 → '26년 286.5억 달러(21.5%↑, '11년의 3.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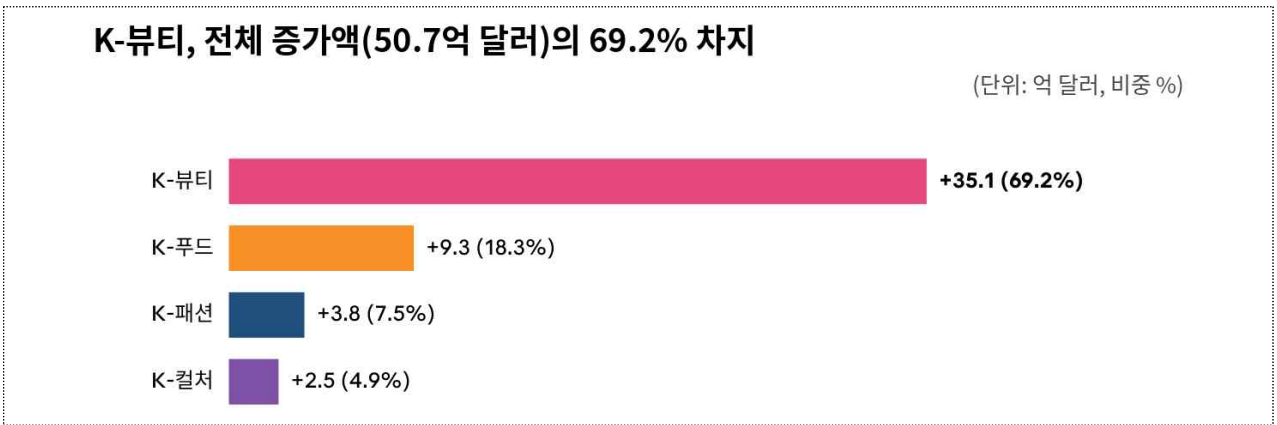
○ K-뷰티가 증가를 주도했으며, K-뷰티를 제외한 3개 분야도 11.6% 증가

- K-뷰티 증가액(+35.1억 달러)이 K-소비재 전체 증가액(+50.7억 달러)의 69.2%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전체 증가액(+18.0억 달러)의 약 2배

〈 K-소비재 분야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5년			'26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소비재	23,576	100.0	+8.3	28,647	100.0	+21.5
K-뷰티	10,140	43.0	+10.8	13,649	47.6	+34.6
K-푸드	10,010	42.5	+7.5	10,941	38.2	+9.3
K-패션	2,750	11.7	+2.9	3,134	10.9	+14.0
K-컬처	676	2.9	+5.5	922	3.2	+36.5



② 요 인

□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품질·가격 경쟁력과 현지 유통망 확대가 더해져 K-소비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 **(K-뷰티)** 성분·효능 중심의 스킨케어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미국·영국 등에서 대중화되면서 미국·유럽 수출 증가

* Korean beauty products are becoming mainstream in the U.S. (CNBC, '26.7.18)
* Cosmetics Business reveals the top 5 K-beauty trends of 2026 in new report (Cosmetics Business, '26.8.4)

- 미국 대형 뷰티 유통사에 K-뷰티 전용 코너가 개설되고('26.8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의 K-뷰티 제품 매출이 전년의 2배 이상으로 증가

* Sephora Taps Olive Young to Expand K-Beauty (BeautyMatter, '26.8.4)
* Boots brings Korea's next wellness trend to the UK high street with a dedicated new offering (Retail Times, '26.11.2)

- 미국(29.4억 달러, 48.0%↑)·유럽(30.0억 달러, 76.4%↑) 수출이 모두 역대 최대로, 특히 영국(5.5억 달러, 174.0%↑)·네덜란드(4.9억 달러, 314.8%↑) 수출 급증

○ **(K-푸드)** K-팝·드라마 인기, 매운맛 신제품 출시, 고물가에 따른 간편식 수요 확대 등으로 라면 수출 증가

* Why South Korean noodle companies are betting on an overseas appetite for growth (CNBC, '26.1.18)

- 떡볶이·김밥 등 K-분식도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북미·유럽에서 대중화되는 등 가공식품 수출 증가

* Street-food Staples Propel South Korean Food into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nsumers Weekly Shop (Perishable News, '26.10.5)

○ **(K-패션)** 중국 내 한국 패션 제품 수요가 늘고, 국내 패션 플랫폼의 상하이 매장 개설 및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등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중화권 수출 증가

* KKR-Backed Musinsa Ramps Up Asia Store Push Ahead of IPO (Bloomberg, '26.7.2)
* China's e-commerce platforms help unlock global markets for South Korean brands (SCMP, '26.6.20)

- 대중국(9.9억 달러, 23.0%↑)·대홍콩(2.8억 달러, 63.6%↑) 수출이 모두 역대 최대

○ **(K-컬처)**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앨범 발매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상 2관왕('26.3월) 등으로 K-팝에 대한 글로벌 관심 확대

* BTS' comeback album 'Arirang' sells 3.98 million copies on first day (Reuters, '26.3.21)
* 'KPop Demon Hunters' makes Oscars history (Los Angeles Times, '26.3.15)

- 실물 음반 수요가 늘면서 음반 수출이 4.2억 달러(66.8%↑)로 역대 최대

③ 기업

□ 수출기업은 27,618개사(5.6%↑)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

* 수출기업 수 : (연간) '22년 24,132 → '23년 25,496 → '24년 26,107 → '25년 27,897개사, (1.1~11.19) '25년 26,161 → '26년 27,618개사(5.6%↑)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액의 90.7%(전년 동기 89.0%)를 차지했으며, 전체 증가액(+50.7억 달러)의 98.8%(+50.1억 달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 중소기업 수출액은 176.3억 달러(22.2%↑)로 전체 수출액의 61.6%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25,811개사(4.0%↑)로 93.5%

* 중소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127.3 → '23년 135.3 → '24년 151.5 → '25년 166.4억 달러, (1.1~11.19) '25년 144.3 → '26년 176.3억 달러(22.2%↑)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55.6 → '23년 56.0 → '24년 61.0 → '25년 62.9만 달러, (1.1~11.19) '25년 58.2 → '26년 68.3만 달러(17.4%↑)

○ 중견기업 수출액은 83.6억 달러(27.7%↑)로 전체 수출액의 29.2%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815개사(2.4%↑)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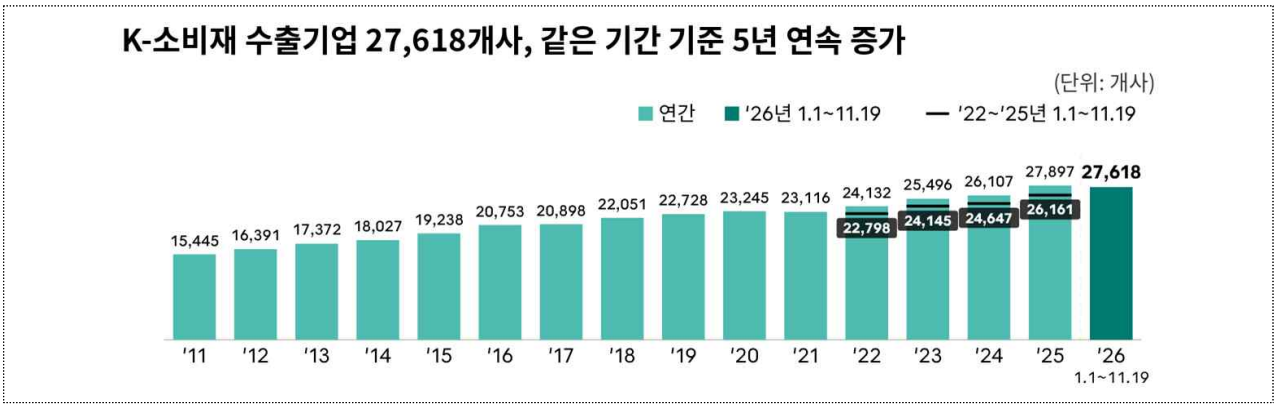
* 중견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56.0 → '23년 57.6 → '24년 65.2 → '25년 74.2억 달러, (1.1~11.19) '25년 65.5 → '26년 83.6억 달러(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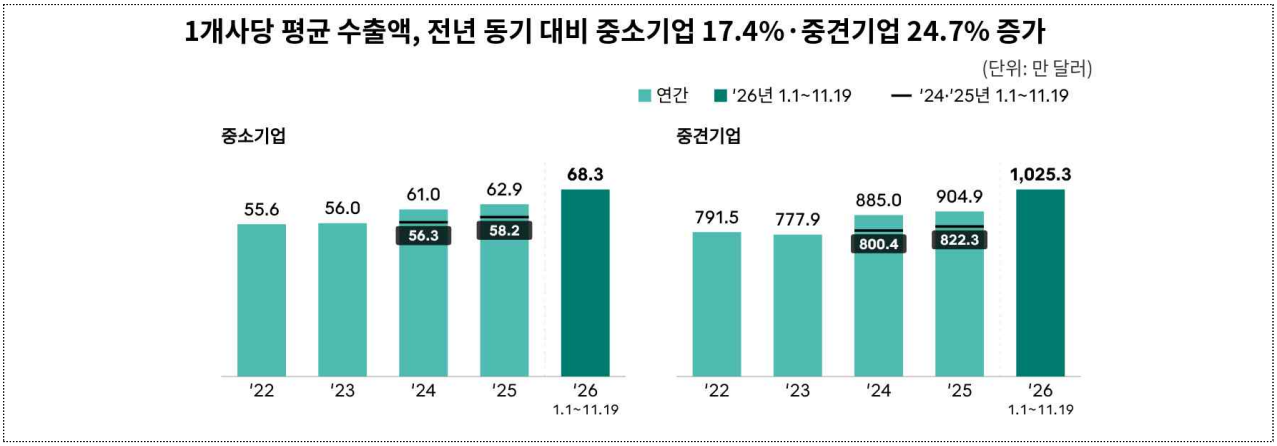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791.5 → '23년 777.9 → '24년 885.0 → '25년 904.9만 달러, (1.1~11.19) '25년 822.3 → '26년 1,025.3만 달러(24.7%↑)

〈 K-소비재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기업규모	'25년				'26년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26,161	23,576	100.0	+8.3	27,618	28,647	100.0	+21.5
중소·중견기업	25,608	20,980	89.0	+10.8	26,626	25,990	90.7	+23.9
중소기업	24,812	14,434	61.2	+9.4	25,811	17,634	61.6	+22.2
중견기업	796	6,546	27.8	+14.1	815	8,356	29.2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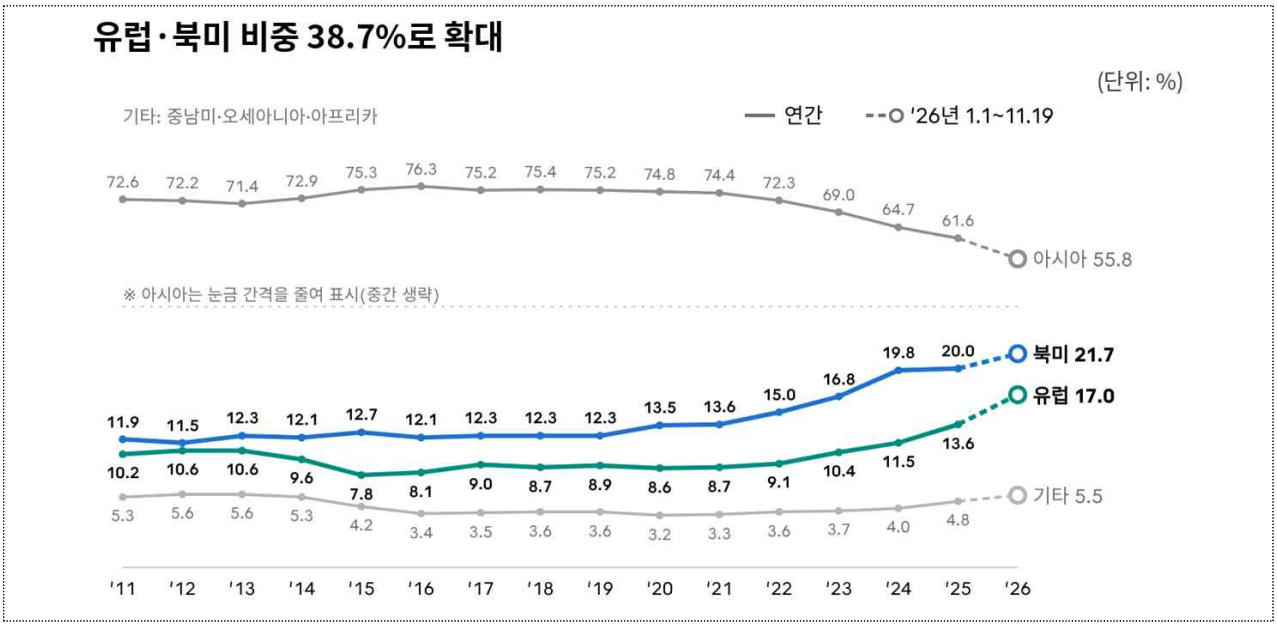
④ 대륙·국가

□ **(대륙) 아시아**(159.9억 달러, 10.3%↑) > **북미**(62.2억 달러, 30.2%↑) > **유럽**(48.6억 달러, 52.3%↑) 순

○ 6개 대륙 모두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유럽·북미 비중 확대

- 유럽(52.3%↑)·북미(30.2%↑)가 아시아(10.3%↑)보다 크게 늘어 비중 확대

* 대륙별 비중('25년 연간 → '26년 1.1~11.19) : 유럽 13.6% → 17.0%, 북미 20.0% → 21.7%



○ 중남미(6.5억 달러, 80.1%↑)는 6개 대륙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음

○ EU는 동기간 기준 7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ASEAN도 7.6%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

* EU 수출액 : (연간) '19년 9.0 → '20년 9.4 → '21년 11.3 → '22년 12.0 → '23년 12.9 → '24년 16.8 → '25년 22.7억 달러, (1.1~11.19) '25년 19.9 → '26년 30.9억 달러(55.4%↑)

* ASEAN 수출액 : (연간) '22년 37.7 → '23년 40.1 → '24년 42.9 → '25년 42.1억 달러, (1.1~11.19) '25년 36.3 → '26년 39.0억 달러(7.6%↑)

〈 K-소비재 대륙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대륙	'25년			'26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23,576	100.0	+8.3	28,647	100.0	+21.5
아시아	14,498	61.5	+3.0	15,991	55.8	+10.3
ASEAN	3,629	15.4	△2.7	3,904	13.6	+7.6
북미	4,776	20.3	+10.4	6,217	21.7	+30.2
유럽	3,195	13.5	+27.8	4,865	17.0	+52.3
EU	1,987	8.4	+35.5	3,089	10.8	+55.4
중남미	358	1.5	+39.6	645	2.3	+80.1
오세아니아	490	2.1	+13.0	607	2.1	+23.7
아프리카	258	1.1	+39.4	321	1.1	+24.2

□ **(국가) 미국**(56.9억 달러, 30.3%↑) > **중국**(51.0억 달러, 11.5%↑) > **일본**(29.0억 달러, 2.8%↑) 순

○ 미국·일본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04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 최대 수출국 : ('02~'04년) 미국 → ('05~'14년) 일본 → ('15~'25년) 중국(이상 연간) → ('26년, 1.1~11.19) 미국

○ 최대 수출국은 뷰티(29.4억 달러)·푸드(21.8억 달러)·컬처(2.3억 달러)가 미국, 패션은 중국(9.9억 달러)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영국 수출이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상위 5개국 외 국가로의 수출도 31.2%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 네덜란드 8.2억 달러(112.6%↑), 영국 7.5억 달러(107.7%↑)

* 상위 5개국 외 수출액 : (연간) '25년 109.5억 달러, (1.1~11.19) '25년 94.2억 달러 → '26년 123.6억 달러(31.2%↑)

○ 1억 달러 이상 수출국 33개국 중 29개국이 역대 최대를 기록

* 1억 달러 이상 수출국 : (연간) '25년 32개국, (1.1~11.19) '25년 29개국 → '26년 33개국(+4개국)

〈 K-소비재 국가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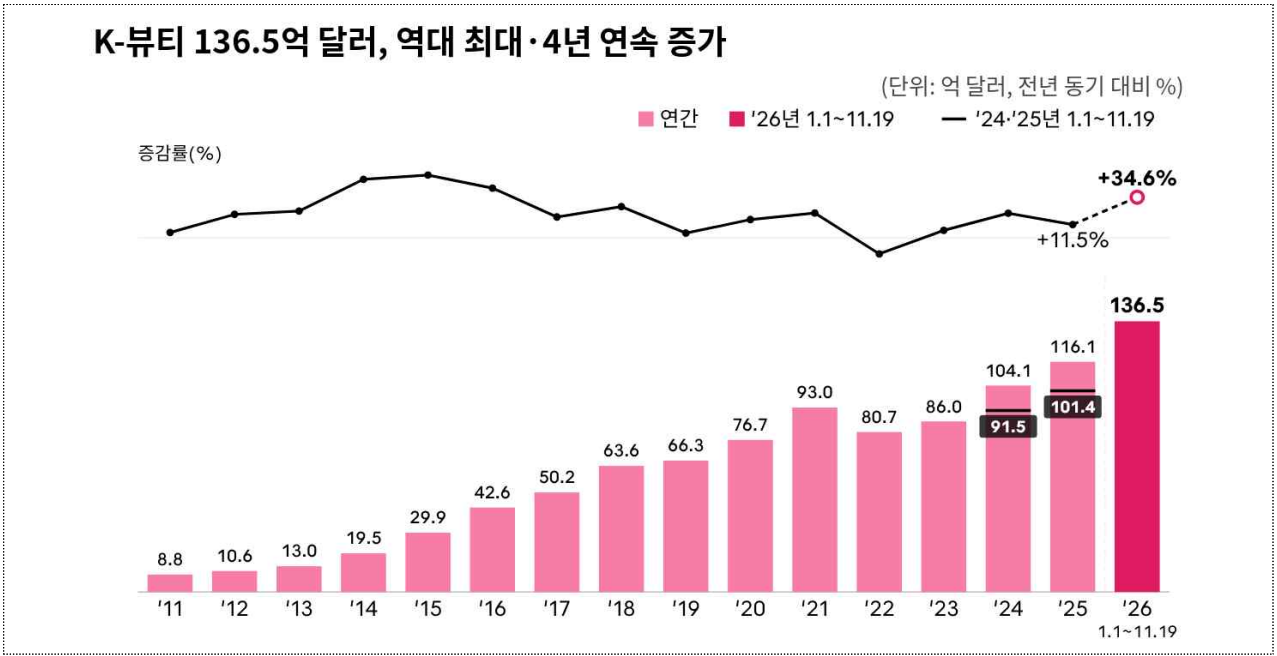
순위	'25년				'26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4,572	19.4	△2.6	미국	5,690	19.9	+30.3
2	미국	4,367	18.5	+10.0	중국	5,098	17.8	+11.5
3	일본	2,818	12.0	+3.5	일본	2,898	10.1	+2.8
4	베트남	1,289	5.5	△8.6	베트남	1,302	4.5	+1.0
5	홍콩	1,106	4.7	+10.2	홍콩	1,296	4.5	+17.2
기타	218개	9,423	40.0	+18.2	222개	12,363	43.2	+31.2
전체	223개	23,576	100.0	+8.3	227개	28,647	100.0	+21.5

Ⅱ. 분야별 동향

① K-뷰티: 136.5억 달러(34.6%↑), 역대 최대…4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 경신

□ '26년 1.1~11.19 기준 K-뷰티 제품 수출액은 136.5억 달러(34.6%↑)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116.1억 달러)을 넘어섬

○ 동기간 기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확대('25년 연간 11.5% → '26년 전년 동기 대비 34.6%)



□ **(품목) 기초화장품**(55.2억 달러, 32.5%↑) > **기타화장품**(38.9억 달러, 52.3%↑) > **미용제품**(17.4억 달러, 44.3%↑) 순

○ 기초화장품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7개 품목군 중 색조화장품을 제외한 기초화장품·기타화장품·미용제품 등 6개가 역대 최대를 기록

○ 세안제품(6.7억 달러, 34.9%↑)·헤어제품(5.8억 달러, 41.8%↑)·향수(86.8백만 달러, 75.5%↑)도 큰 폭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

* 세안제품 +1.7억 달러, 헤어제품 +1.7억 달러, 향수 +37.3백만 달러

○ 미용기기는 61.8%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섬

* 미용기기 수출액 : (연간) '25년 1.7억 달러, (1.1~11.19) '25년 1.4억 달러 → '26년 2.3억 달러(61.8%↑)

〈 K-뷰티 품목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5년			'26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뷰티	10,140	100.0	+10.8	13,649	100.0	+34.6
기초화장품	4,166	41.1	+3.1	5,521	40.4	+32.5
기타화장품	2,555	25.2	+19.0	3,892	28.5	+52.3
미용제품	1,206	11.9	+20.6	1,740	12.7	+44.3
헤어제품	412	4.1	+14.9	585	4.3	+41.8
색조화장품	1,522	15.0	+13.5	1,507	11.0	△1.0
입술화장품	541	5.3	+28.3	493	3.6	△8.9
세안제품	499	4.9	+25.6	673	4.9	+34.9
미용기기	142	1.4	△24.6	230	1.7	+61.8
향수	49	0.5	+43.0	87	0.6	+75.5

□ **(기업)** 수출기업은 10,571개사(6.7%↑)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9년 연속 증가

* 수출기업 수 : (연간) '22년 8,325 → '23년 8,708 → '24년 9,340 → '25년 10,523개사, (1.1~11.19) '25년 9,903 → '26년 10,571개사(6.7%↑)

○ 중소기업 수출액은 92.4억 달러(31.4%↑)로 분야 수출액의 67.7%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10,091개사(5.0%↑)로 95.5%

* 중소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44.7 → '23년 53.8 → '24년 69.5 → '25년 80.7억 달러, (1.1~11.19) '25년 70.3 → '26년 92.4억 달러(31.4%↑)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55.3 → '23년 63.7 → '24년 76.6 → '25년 79.1만 달러, (1.1~11.19) '25년 73.2 → '26년 91.6만 달러(25.1%↑)

○ 중견기업 수출액은 32.1억 달러(59.1%↑)로 분야 수출액의 23.5%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187개사(3.6%↓)로 1.8%

* 중견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14.7 → '23년 14.3 → '24년 18.0 → '25년 23.0억 달러, (1.1~11.19) '25년 20.2 → '26년 32.1억 달러(59.1%↑)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1,072.6 → '23년 959.1 → '24년 1,188.9 → '25년 1,161.5만 달러, (1.1~11.19) '25년 1,039.8 → '26년 1,715.9만 달러(65.0%↑)

〈 K-뷰티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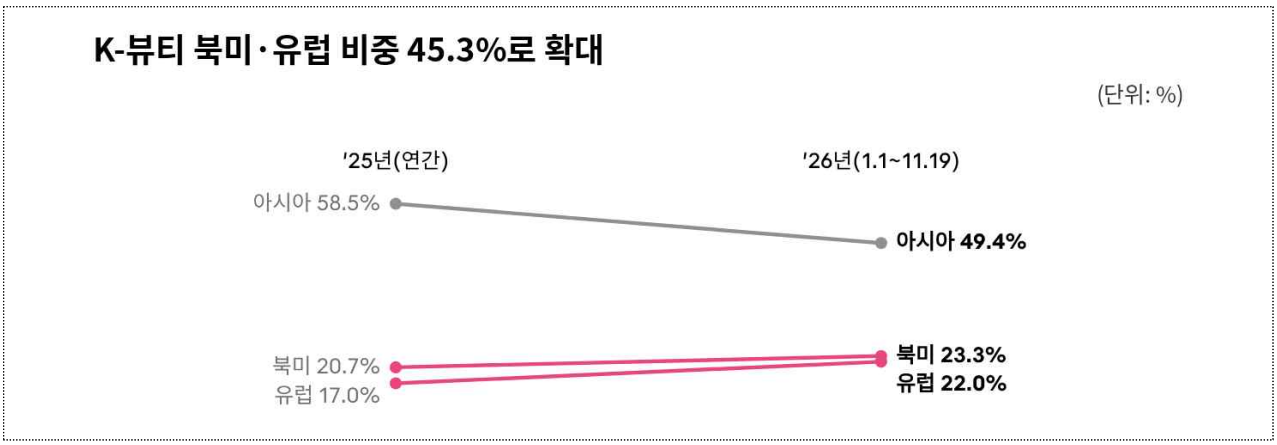
기업규모	'25년				'26년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9,903	10,140	100.0	+10.8	10,571	13,649	100.0	+34.6
중소·중견기업	9,803	9,049	89.2	+18.3	10,278	12,451	91.2	+37.6
중소기업	9,609	7,032	69.4	+15.9	10,091	9,242	67.7	+31.4
중견기업	194	2,017	19.9	+27.4	187	3,209	23.5	+59.1

□ **(대륙) 아시아**(67.5억 달러, 13.8%↑) > **북미**(31.8억 달러, 48.5%↑) > **유럽**(30.0억 달러, 76.4%↑) 순

○ 북미·유럽·중남미 등 5개 대륙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북미·유럽 비중이 '25년 연간 37.7%에서 45.3%로 확대

- 중남미(129.2%↑)·유럽(76.4%↑)·오세아니아(70.4%↑)가 크게 증가

* 대륙별 비중('25년 연간 → '26년 1.1~11.19) : 아시아 58.5% → 49.4%, 북미 20.7% → 23.3%, 유럽 17.0% → 22.0%



○ 동기간 기준 EU(18.2억 달러, 83.0%↑)는 7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ASEAN(14.8억 달러, 15.0%↑)도 역대 최대

〈 K-뷰티 대륙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대륙	'25년			'26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10,140	100.0	+10.8	13,649	100.0	+34.6
아시아	5,928	58.5	+0.8	6,746	49.4	+13.8
ASEAN	1,283	12.6	+1.5	1,475	10.8	+15.0
북미	2,140	21.1	+13.9	3,177	23.3	+48.5
유럽	1,703	16.8	+45.9	3,004	22.0	+76.4
EU	993	9.8	+69.5	1,818	13.3	+83.0
중남미	170	1.7	+99.3	391	2.9	+129.2
오세아니아	160	1.6	+46.9	272	2.0	+70.4
아프리카	38	0.4	+41.6	59	0.4	+55.6

□ **(국가) 미국**(29.4억 달러, 48.0%↑) > **중국**(19.1억 달러, 4.6%↑) > **일본**(11.0억 달러, 12.6%↑) 순

○ 상위 10개국 중 미국·일본·영국·러시아·네덜란드·폴란드·대만 7개국이 역대 최대를 기록

- 영국 5.5억 달러(174.0%↑), 러시아 4.9억 달러(27.9%↑), 네덜란드 4.9억 달러(314.8%↑), 폴란드 3.7억 달러(46.8%↑), 대만 3.4억 달러(13.7%↑)

○ 특히 영국(174.0%↑)·네덜란드(314.8%↑)는 2배 이상 늘어 유럽 수출 증가를 견인

〈 K-뷰티 국가별 수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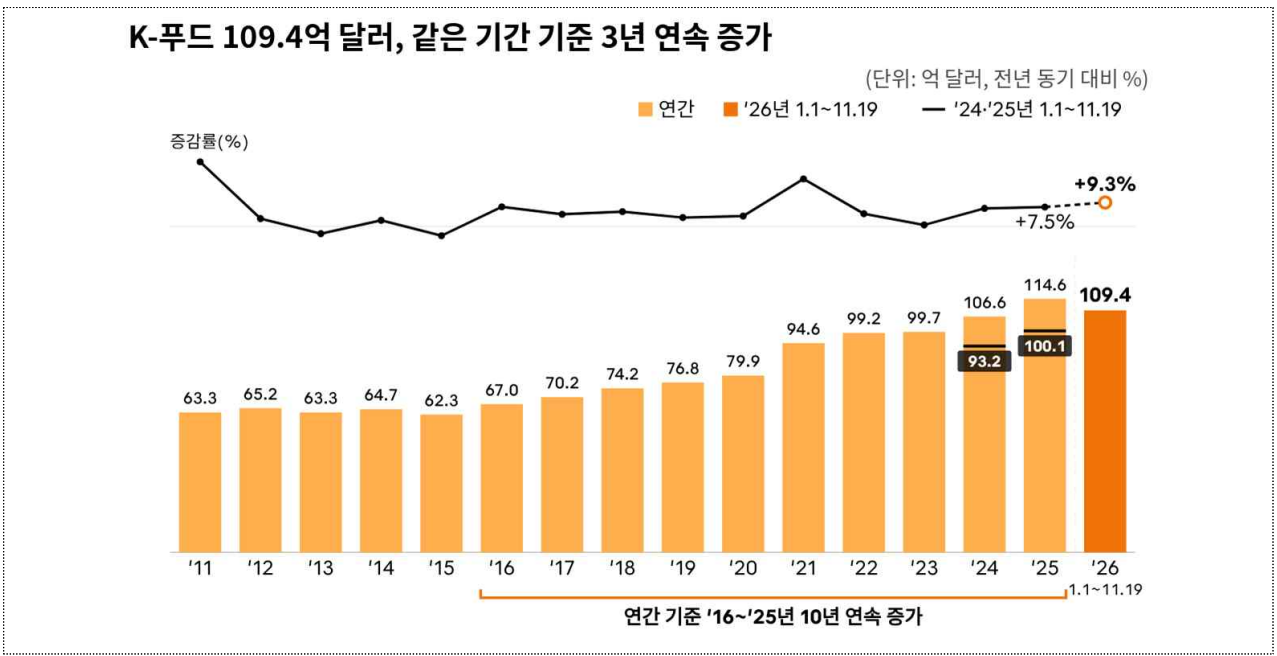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5년				'26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미국	1,984	19.6	+11.9	미국	2,938	21.5	+48.0
2	중국	1,829	18.0	△18.6	중국	1,913	14.0	+4.6
3	일본	976	9.6	+3.4	일본	1,099	8.1	+12.6
4	홍콩	629	6.2	+20.8	홍콩	680	5.0	+8.2
5	베트남	410	4.0	△11.1	영국	547	4.0	+174.0
기타	199개	4,311	42.5	+34.6	203개	6,473	47.4	+43.1
전체	204개	10,140	100.0	+10.8	208개	13,649	100.0	+34.6

② K-푸드: 109.4억 달러(9.3%↑), 역대 최대…3년 연속 증가

□ '26년 1.1~11.19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09.4억 달러(9.3%↑)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

○ 동기간 기준 3년 연속 증가했으며(연간 기준으로는 '16년 이후 '25년까지 10년 연속 증가), 증가율은 확대('25년 연간 7.5% → '26년 전년 동기 대비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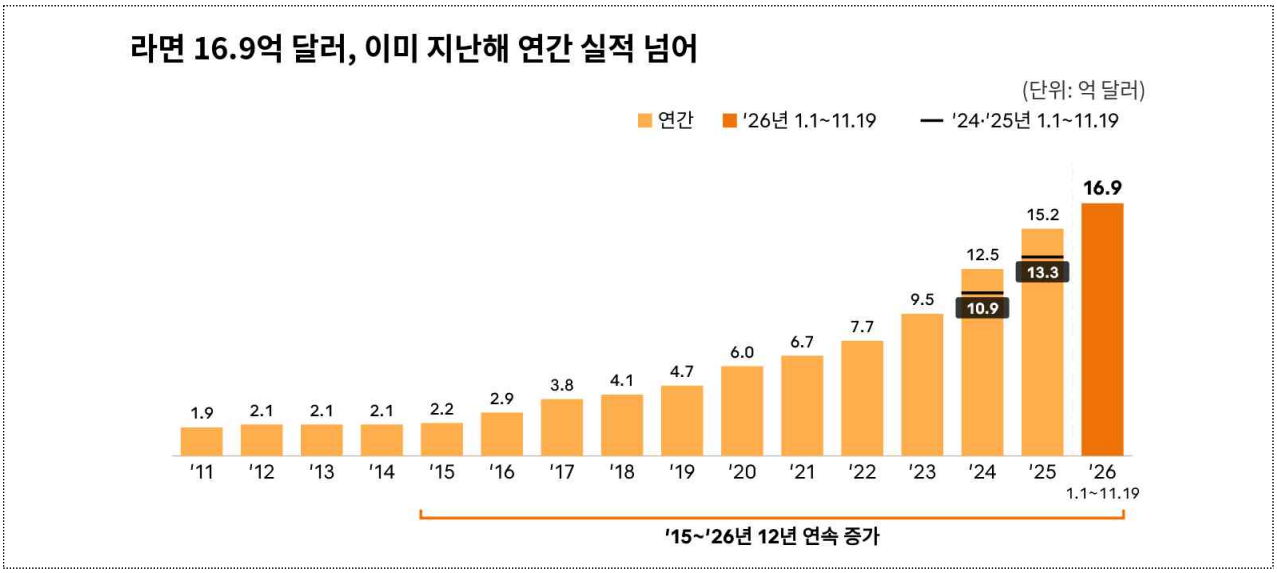


□ **(품목) 가공식품**(66.7억 달러, 9.5%↑) > **수산물**(30.9억 달러, 12.6%↑) > **농산물**(8.3억 달러, 6.5%↑) > **축산물**(3.1억 달러, △11.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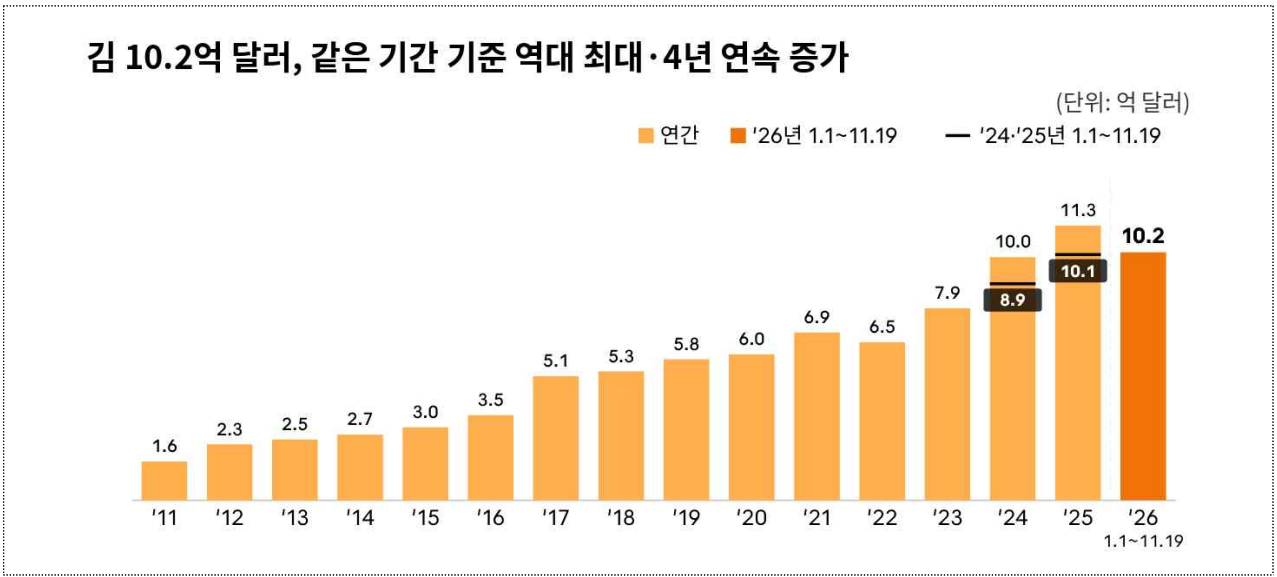
○ 5개 품목군 중 가공식품·수산물·농산물 3개가 역대 최대를 기록

- **라면**은 16.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15.2억 달러)을 넘어섬

* 라면 16.9억 달러(+3.6억 달러, 26.8%↑), 수산물 30.9억 달러(+3.5억 달러, 12.6%↑)



- **김**은 10.2억 달러(1.2%↑)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



○ 고등어·포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딸기도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

* 고등어 2.5억 달러(87.7%↑), 포도 1.1억 달러(91.8%↑), 딸기 62.6백만 달러(17.2%↑)

○ 반면 축산물(3.1억 달러, 11.3%↓)은 기타 동물성 유지(1.6억 달러, 23.0%↓)가 줄며 감소했으나,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는 모두 증가

- 닭고기(86.3백만 달러, 4.8%↑)·돼지고기(44.5백만 달러, 17.1%↑)·쇠고기(7.0백만 달러, 84.3%↑)가 늘었고, 돼지고기는 역대 최대

〈 K-푸드 품목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5년			'26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푸드	10,010	100.0	+7.5	10,941	100.0	+9.3
가공식품	6,091	60.9	+4.9	6,670	61.0	+9.5
라면	1,335	13.3	+22.0	1,693	15.5	+26.8
과자류	668	6.7	△1.7	727	6.6	+8.9
소스류	363	3.6	+5.0	386	3.5	+6.3
주류	309	3.1	△1.1	306	2.8	△0.9
맥주	72	0.7	+0.2	93	0.8	+29.2
리큐르	87	0.9	△1.4	80	0.7	△8.8
소주	85	0.8	△6.5	72	0.7	△14.3
커피조제품	330	3.3	+13.2	217	2.0	△34.4
빙과류·아이스크림	110	1.1	+20.7	118	1.1	+7.2
수산물	2,747	27.4	+9.6	3,094	28.3	+12.6
김	1,010	10.1	+13.2	1,022	9.3	+1.2
참치	472	4.7	△9.2	525	4.8	+11.3
고등어	136	1.4	+97.9	255	2.3	+87.7
갑각류	199	2.0	+16.7	242	2.2	+22.0
오징어	101	1.0	+61.5	75	0.7	△25.1
농산물	781	7.8	+3.3	832	7.6	+6.5
김치	145	1.5	+1.5	150	1.4	+3.1
포도	59	0.6	+50.1	113	1.0	+91.8
딸기	53	0.5	+1.1	63	0.6	+17.2
배	43	0.4	△14.3	37	0.3	△13.4
감	3	0.03	+24.6	3	0.02	△18.5
참외	2	0.02	+31.7	2	0.02	+5.4
축산물	354	3.5	+58.6	314	2.9	△11.3
기타 동물성 유지	203	2.0	+168.5	156	1.4	△23.0
닭고기	82	0.8	+0.2	86	0.8	+4.8
돼지고기	38	0.4	+5.7	44	0.4	+17.1
쇠고기	4	0.0	+6.6	7	0.1	+84.3
임산물	37	0.4	+52.0	31	0.3	△16.0

□ **(기업)** 수출기업은 9,094개사(1.7%↑)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증가

* 수출기업 수 : (연간) '22년 8,139 → '23년 8,669 → '24년 9,231 → '25년 9,611개사, (1.1~11.19) '25년 8,940 → '26년 9,094개사(1.7%↑)

○ 중소기업 수출액은 53.2억 달러(11.0%↑)로 분야 수출액의 48.6%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8,431개사(0.6%↑)로 92.7%

* 중소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51.9 → '23년 50.9 → '24년 52.8 → '25년 55.5억 달러, (1.1~11.19) '25년 47.9 → '26년 53.2억 달러(11.0%↑)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68.1 → '23년 62.5 → '24년 60.6 → '25년 61.5만 달러, (1.1~11.19) '25년 57.2 → '26년 63.1만 달러(10.4%↑)

○ 중견기업 수출액은 45.0억 달러(11.7%↑)로 분야 수출액의 41.2%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333개사(4.0%↓)로 3.7%

* 중견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35.5 → '23년 37.5 → '24년 41.8 → '25년 45.6억 달러, (1.1~11.19) '25년 40.3 → '26년 45.0억 달러(11.7%↑)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1,223.4 → '23년 1,249.0 → '24년 1,432.4 → '25년 1,281.0만 달러, (1.1~11.19) '25년 1,162.2 → '26년 1,352.5만 달러(16.4%↑)

〈 K-푸드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기업규모	'25년				'26년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8,940	10,010	100.0	+7.5	9,094	10,941	100.0	+9.3
중소·중견기업	8,728	8,824	88.2	+6.7	8,764	9,825	89.8	+11.3
중소기업	8,381	4,792	47.9	+4.1	8,431	5,321	48.6	+11.0
중견기업	347	4,033	40.3	+9.9	333	4,504	41.2	+11.7

□ **(대륙) 아시아**(63.3억 달러, 4.1%↑) > **북미**(24.2억 달러, 14.7%↑) > **유럽**(14.4억 달러, 24.2%↑) 순

○ 아시아·북미·유럽 등 5개 대륙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북미·유럽 비중이 '25년 연간 32.4%에서 35.3%로 확대

- 중남미(32.1%↑)·유럽(24.2%↑)·아프리카(21.5%↑)가 크게 증가

* 대륙별 비중('25년 연간 → '26년 1.1~11.19) : 아시아 60.8% → 57.8%, 북미 20.9% → 22.1%, 유럽 11.5% → 13.2%

○ 동기간 기준 EU(9.4억 달러, 29.4%↑)는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ASEAN(18.5억 달러, 2.9%↑)도 역대 최대

〈 K-푸드 대륙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대륙	'25년			'26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10,010	100.0	+7.5	10,941	100.0	+9.3
아시아	6,079	60.7	+5.0	6,327	57.8	+4.1
ASEAN	1,800	18.0	△2.0	1,852	16.9	+2.9
북미	2,109	21.1	+10.6	2,419	22.1	+14.7
유럽	1,159	11.6	+12.0	1,440	13.2	+24.2
EU	723	7.2	+12.4	936	8.6	+29.4
중남미	164	1.6	+9.2	216	2.0	+32.1
오세아니아	297	3.0	+1.7	292	2.7	△1.5
아프리카	202	2.0	+41.6	246	2.2	+21.5

□ (국가) **미국**(21.8억 달러, 15.1%↑) > **중국**(20.0억 달러, 11.8%↑) > **일본**(13.0억 달러, 5.0%↓) 순

○ 상위 10개국 중 미국·중국·대만·러시아·필리핀·네덜란드 6개국이 역대 최대를 기록

* 대만 3.8억 달러(18.6%↑), 러시아 3.2억 달러(11.8%↑), 필리핀 3.0억 달러(2.9%↑), 네덜란드 2.8억 달러(19.5%↑)

○ 상위 10개국 밖에서도 멕시코(98.7백만 달러, 82.9%↑)·나이지리아(77.5백만 달러, 57.0%↑)는 크게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

○ 반면 일본(5.0%↓)·베트남(5.4억 달러, 5.6%↓)은 감소

〈 K-푸드 국가별 수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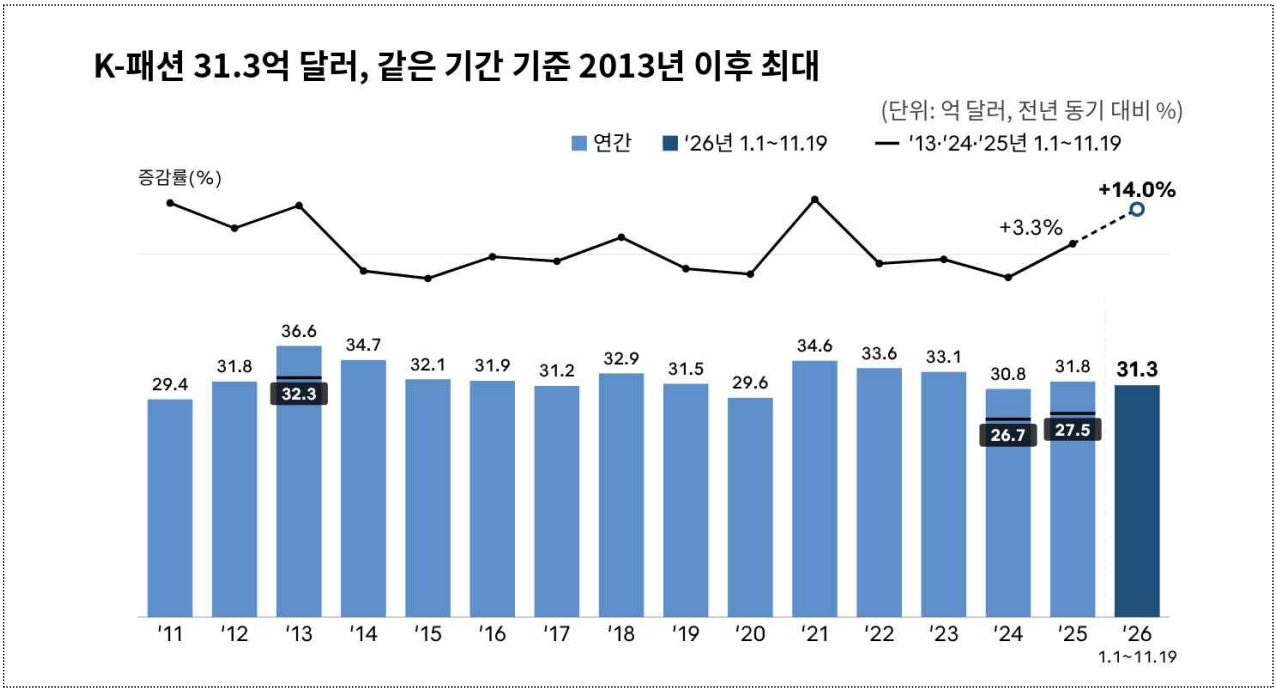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5년				'26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미국	1,893	18.9	+11.3	미국	2,178	19.9	+15.1
2	중국	1,788	17.9	+10.6	중국	1,998	18.3	+11.8
3	일본	1,366	13.6	+5.5	일본	1,298	11.9	△5.0
4	베트남	574	5.7	△2.4	베트남	542	5.0	△5.6
5	태국	321	3.2	△4.2	대만	378	3.5	+18.6
기타	198개	4,068	40.6	+7.6	200개	4,547	41.6	+11.7
전체	203개	10,010	100.0	+7.5	205개	10,941	100.0	+9.3

③ K-패션: 31.3억 달러(14.0%↑), 2년 연속 증가

□ '26년 1.1~11.19 기준 K-패션 제품 수출액은 31.3억 달러(14.0%↑)로 '13년(32.3억 달러) 이후 동기간 최대를 기록

○ 동기간 기준 '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뒤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확대('25년 연간 3.3% → '26년 전년 동기 대비 14.0%)



□ **(품목) 의류**(18.6억 달러, 10.3%↑) > **가방류**(5.0억 달러, 35.4%↑) > **안경류**(4.0억 달러, 8.1%↑) > **신발류**(3.7억 달러, 15.1%↑) 순

○ 4개 품목군 모두 증가했으며, 의류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가방류는 동기간 기준 2013년(5.6억 달러) 이후 최대

* 가방류 분야 내 비중 : (연간) '25년 13.4%, (1.1~11.19) '25년 13.6% → '26년 16.1%(+2.5%p)

〈 K-패션 품목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5년			'26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패션	2,750	100.0	+2.9	3,134	100.0	+14.0
의류	1,690	61.4	△0.1	1,864	59.5	+10.3
가방류	373	13.6	+29.7	505	16.1	+35.4
안경류	369	13.4	△2.0	399	12.7	+8.1
신발류	318	11.6	+0.6	367	11.7	+15.1

□ **(기업)** 수출기업은 11,068개사(7.4%↑)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

* 수출기업 수 : (연간) '22년 10,154 → '23년 10,789 → '24년 10,449 → '25년 11,033개사, (1.1~11.19) '25년 10,305 → '26년 11,068개사(7.4%↑)

○ 중소기업 수출액은 24.7억 달러(15.3%↑)로 분야 수출액의 78.8%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10,204개사(6.4%↑)로 92.2%

* 중소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25.5 → '23년 25.2 → '24년 23.5 → '25년 24.8억 달러, (1.1~11.19) '25년 21.4 → '26년 24.7억 달러(15.3%↑)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26.8 → '23년 25.0 → '24년 24.1 → '25년 24.1만 달러, (1.1~11.19) '25년 22.3 → '26년 24.2만 달러(8.3%↑)

○ 중견기업 수출액은 3.7억 달러(9.1%↑)로 분야 수출액의 11.8%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434개사(6.1%↑)로 3.9%

* 중견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5.0 → '23년 4.6 → '24년 4.5 → '25년 3.9억 달러, (1.1~11.19) '25년 3.4 → '26년 3.7억 달러(9.1%↑)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130.3 → '23년 114.9 → '24년 108.1 → '25년 91.4만 달러, (1.1~11.19) '25년 83.1 → '26년 85.4만 달러(2.8%↑)

〈 K-패션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기업규모	'25년				'26년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10,305	2,750	100.0	+2.9	11,068	3,134	100.0	+14.0
중소·중견기업	9,997	2,483	90.3	+2.2	10,638	2,840	90.6	+14.4
중소기업	9,588	2,143	77.9	+5.4	10,204	2,470	78.8	+15.3
중견기업	409	340	12.4	△14.3	434	371	11.8	+9.1

□ **(대륙)** 아시아(24.0억 달러, 15.4%↑) > 북미(3.8억 달러, 5.9%↑) > 유럽(3.0억 달러, 11.7%↑) 순

○ 아시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비중 상승

* 대륙별 비중('25년 연간 → '26년 1.1~11.19) : 아시아 75.7% → 76.5%, 북미 12.9% → 12.1%, 유럽 9.6% → 9.6%

○ EU(2.4억 달러, 8.9%↑)·ASEAN(5.4억 달러, 4.8%↑) 모두 증가

〈 K-패션 대륙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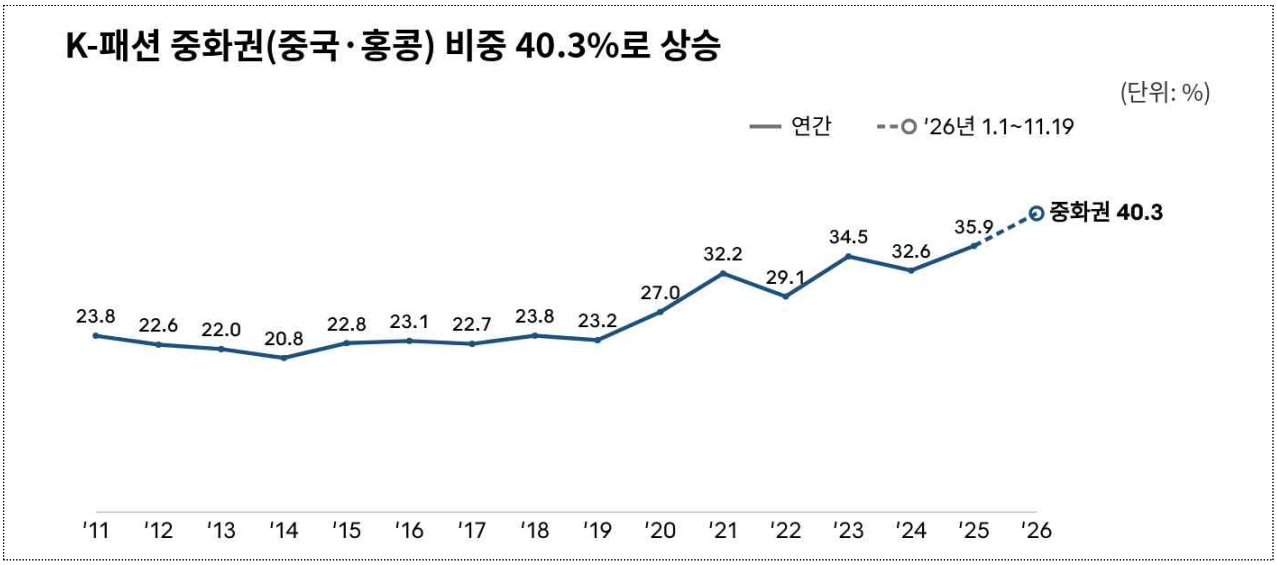
대륙	'25년			'26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2,750	100.0	+2.9	3,134	100.0	+14.0
아시아	2,077	75.5	+3.5	2,397	76.5	+15.4
ASEAN	518	18.8	△13.9	543	17.3	+4.8
북미	358	13.0	△4.6	379	12.1	+5.9
유럽	268	9.8	+8.4	300	9.6	+11.7
EU	219	8.0	+11.0	239	7.6	+8.9
중남미	13	0.5	+14.1	19	0.6	+46.5
오세아니아	25	0.9	+2.7	32	1.0	+26.4
아프리카	9	0.3	+36.8	8	0.3	△16.2

□ **(국가) 중국**(9.9억 달러, 23.0%↑) > **일본**(3.8억 달러, 3.3%↑) > **미국**(3.5억 달러, 4.8%↑) 순

○ 중국·홍콩·태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화권(중국·홍콩) 비중 상승

* 중국 9.9억 달러(23.0%↑), 홍콩 2.8억 달러(63.6%↑), 태국 52.3백만 달러(15.6%↑)

* 중화권 비중 : (연간) '25년 35.9% → ('26년 1.1~11.19) 40.3%(+4.4%p)



○ 반면 **대만**(1.2억 달러, 0.1%↓)·**이탈리아**(70.4백만 달러, 2.8%↓)·**인도네시아**(60.4백만 달러, 8.5%↓)는 감소

〈 K-패션 국가별 수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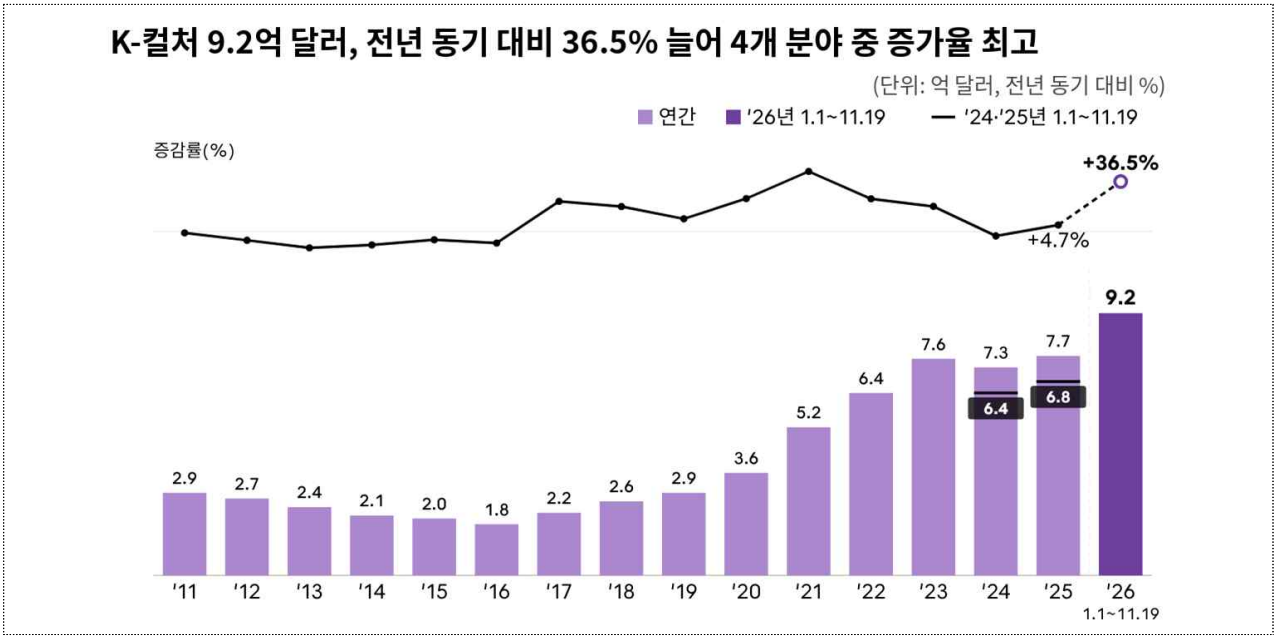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5년				'26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802	29.2	+15.7	중국	986	31.5	+23.0
2	일본	368	13.4	+2.3	일본	380	12.1	+3.3
3	미국	330	12.0	△2.6	미국	345	11.0	+4.8
4	베트남	301	11.0	△15.4	베트남	305	9.7	+1.1
5	홍콩	169	6.1	△0.1	홍콩	276	8.8	+63.6
기타	194개	780	28.4	+3.2	200개	842	26.8	+7.9
전체	199개	2,750	100.0	+2.9	205개	3,134	100.0	+14.0

④ K-컬처: 9.2억 달러(36.5%↑), 역대 최대… 4개 분야 중 증가율 최고, 지난해 연간 실적 이미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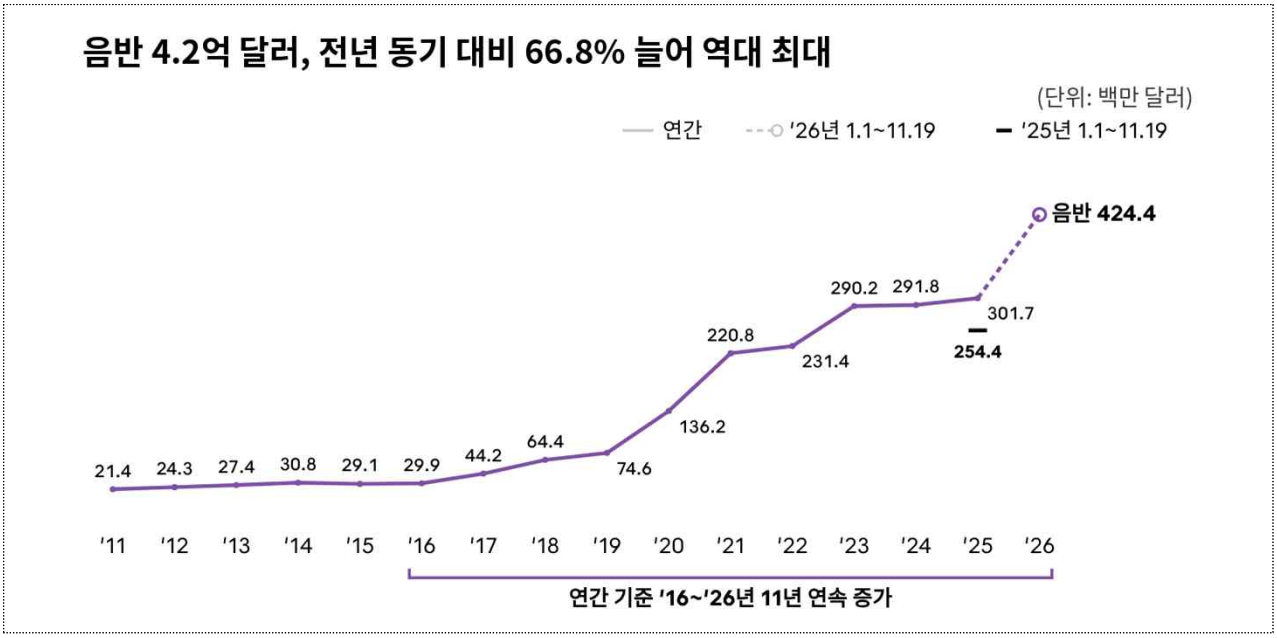
□ '26년 1.1~11.19 기준 K-컬처 상품 수출액은 9.2억 달러(36.5%↑)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7.7억 달러)을 넘어섬

○ 동기간 기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확대('25년 연간 4.7% → '26년 전년 동기 대비 36.5%)되어 4개 분야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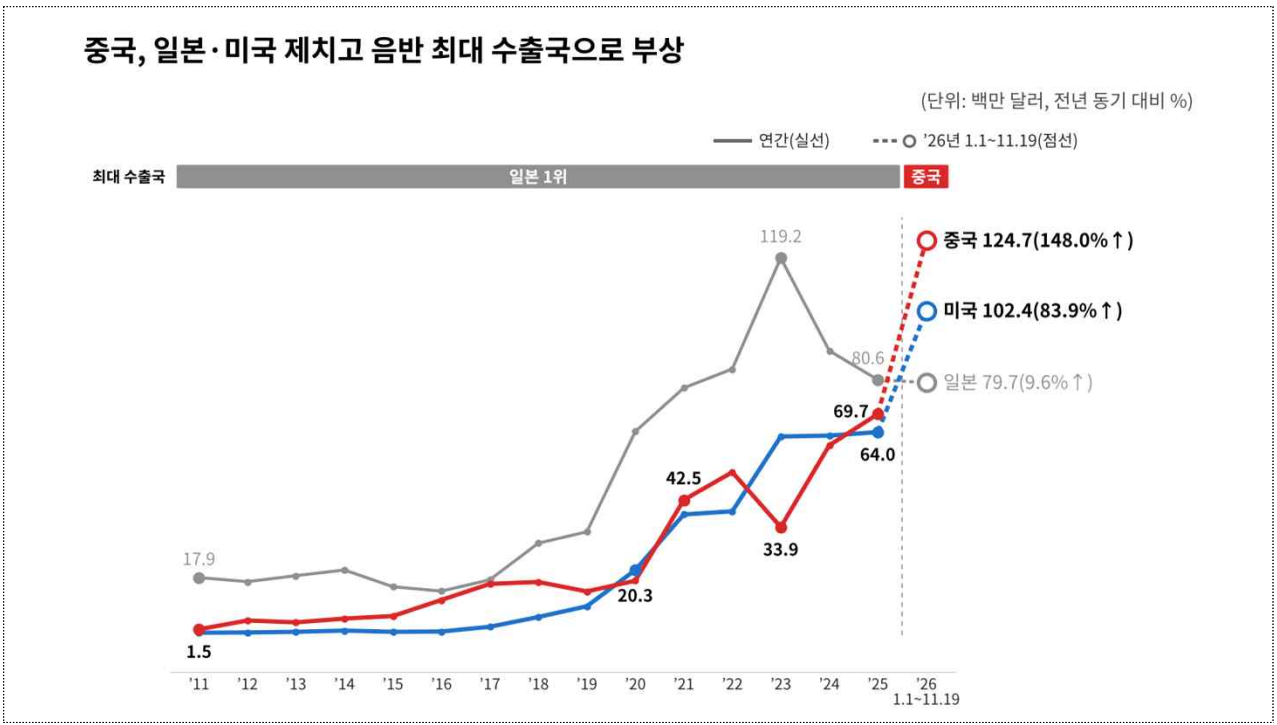


□ **(품목) 음반**(4.2억 달러, 66.8%↑) > **서적**(2.3억 달러, 5.2%↑) > **오락용구**(92.3백만 달러, 38.6%↑) 순

○ 음반이 가장 크게 늘었고, 8개 품목군 중 음반·서적·오락용구·축제용품 4개가 역대 최대



- 대중국 음반 수출은 124.7백만 달러(148.0%↑)로 역대 최대를 기록



○ 콘서트 응원도구 등을 포함한 축제용품(76.2백만 달러, 140.3%↑)은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 반면 같은 K-팝 관련 상품인 포토카드류(39.9백만 달러, 12.1%↓)는 감소했고, 영상물(5.9백만 달러, 2.4%↓)도 감소

〈 K-컬처 품목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5년			'26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컬처	676	100.0	+5.5	922	100.0	+36.5
음반	254	37.6	△3.9	424	46.0	+66.8
서적	214	31.7	+1.8	225	24.4	+5.2
오락용구	67	9.9	+20.3	92	10.0	+38.6
축제용품	32	4.7	+26.7	76	8.3	+140.3
전자게임기	55	8.2	+87.4	56	6.0	+0.9
포토카드류	45	6.7	+4.8	40	4.3	△12.1
영상물	6	0.9	△27.4	6	0.6	△2.4
잡지 및 정기간행물	2	0.3	△38.5	3	0.3	+23.7

□ (기업) 수출기업은 2,570개사(13.1%↑)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증가

* 수출기업 수 : (연간) '22년 1,968 → '23년 2,100 → '24년 2,280 → '25년 2,470개사,
(1.1~11.19) '25년 2,272 → '26년 2,570개사(13.1%↑)

○ 중소기업 수출액은 6.0억 달러(28.5%↑)로 분야 수출액의 65.1%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2,203개사(13.1%↑)로 85.7%

* 중소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5.2 → '23년 5.5 → '24년 5.6 → '25년 5.4억 달러,
(1.1~11.19) '25년 4.7 → '26년 6.0억 달러(28.5%↑)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30.7 → '23년 30.3 → '24년 28.3 → '25년 25.3만 달러,
(1.1~11.19) '25년 24.0 → '26년 27.3만 달러(13.6%↑)

○ 중견기업 수출액은 2.7억 달러(75.2%↑)로 분야 수출액의 29.6%를 차지했으며, 기업 수는 171개사(4.9%↑)로 6.7%

* 중견기업 수출액 : (연간) '22년 0.8 → '23년 1.2 → '24년 1.0 → '25년 1.7억 달러,
(1.1~11.19) '25년 1.6 → '26년 2.7억 달러(75.2%↑)

* 1개사당 평균 수출액 : (연간) '22년 66.5 → '23년 93.6 → '24년 76.0 → '25년 97.9만 달러,
(1.1~11.19) '25년 95.7 → '26년 159.9만 달러(67.0%↑)

〈 K-컬처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기업규모	'25년				'26년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기업수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2,272	676	100.0	+5.5	2,570	922	100.0	+36.5
중소·중견기업	2,111	623	92.2	+8.3	2,374	874	94.8	+40.2
중소기업	1,948	467	69.2	△3.8	2,203	601	65.1	+28.5
중견기업	163	156	23.1	+73.7	171	273	29.6	+75.2

□ **(대륙) 아시아**(5.2억 달러, 25.9%↑) > **북미**(2.4억 달러, 42.7%↑) > **유럽**(1.2억 달러, 90.1%↑) 순

○ 아시아·북미·유럽 등 5개 대륙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유럽 비중 확대

- 유럽(90.1%↑)·중남미(72.8%↑)·북미(42.7%↑)가 크게 증가

* 대륙별 비중('25년 연간 → '26년 1.1~11.19) : 유럽 9.5% → 13.1%, 북미 24.6% → 26.1%

○ EU(95.6백만 달러, 87.9%↑)는 역대 최대를 기록

〈 K-컬처 대륙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대륙	'25년			'26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676	100.0	+5.5	922	100.0	+36.5
아시아	414	61.3	+3.9	521	56.5	+25.9
ASEAN	28	4.1	+4.8	33	3.6	+19.4
북미	169	25.0	+2.8	241	26.1	+42.7
유럽	64	9.4	+29.5	121	13.1	+90.1
EU	51	7.5	+30.4	96	10.4	+87.9
중남미	12	1.7	+13.5	20	2.2	+72.8
오세아니아	9	1.3	△2.4	11	1.2	+18.8
아프리카	9	1.3	△1.9	8	0.9	△3.7

□ **(국가) 미국**(2.3억 달러, 42.8%↑) > **중국**(2.0억 달러, 30.6%↑) > **일본**(1.2억 달러, 12.0%↑) 순

○ 상위 10개국 중 미국·중국·우즈베키스탄·독일·대만·영국·네덜란드·캐나다 8개국이 역대 최대를 기록

* 우즈베키스탄 63.0백만 달러(57.2%↑), 독일 37.7백만 달러(114.1%↑), 대만 37.4백만 달러(3.7%↑), 영국 21.6백만 달러(114.9%↑), 네덜란드 19.5백만 달러(212.8%↑), 캐나다 12.0백만 달러(40.6%↑)

○ 홍콩(53.2백만 달러, 143.1%↑) 수출도 2배 이상 증가

〈 K-컬처 국가별 수출 현황 〉

(1.1~11.1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5년				'26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미국	160	23.7	+1.8	미국	229	24.8	+42.8
2	중국	154	22.8	+10.9	중국	201	21.8	+30.6
3	일본	108	15.9	△13.6	일본	120	13.1	+12.0
4	우즈베키스탄	40	5.9	△6.1	우즈베키스탄	63	6.8	+57.2
5	대만	36	5.3	+18.5	홍콩	53	5.8	+143.1
기타	189개	178	26.3	+21.5	199개	256	27.7	+33.2
전체	194개	676	100.0	+5.5	204개	922	100.0	+36.5

참고1 K-소비재 분야별 품목 구성

※ K-소비재는 관세청 기준에 따라 품목분류코드(HSK)를 4개 분야로 재분류한 것이며, 아래 품목은 주요 예시임

분야	품목군	주요 품목 예시
K-뷰티	기초화장품	기초 피부관리용 화장품 등
	미용제품	헤어제품, 목욕제품, 면도제품 등
	색조화장품	입술화장품, 눈화장품, 손발톱화장품 등
	세안제품	세안제품 등
	향수	향수 등
	기타화장품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화장품 등
	미용기기	가정용 미용기기
K-푸드	가공식품	면류(라면·국수·당면 등), 과자류(비스킷·빵·캔디 등), 소스류(고추장·간장·된장 등), 주류(소주·맥주·탁주 등), 음료, 커피조제품, 빙과류(아이스크림 등), 혼합조제식료품 등
	수산물	어류(참치·고등어·명태 등), 해조류(김·미역 등), 연체동물(오징어·굴 등), 갑각류(게·새우 등) 등
	농산물	과실류(포도·배·유자·감 등), 채소류(김치·딸기·참외 등), 곡류, 버섯류, 두류 등
	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동물성 유지, 난류, 꿀·로열젤리 등
	임산물	밤·호두 등 견과류, 표고버섯, 산채류, 초피 등
K-패션	의류	편물제·직물제 의류(코트·재킷·스웨터·바지 등), 의류부속품(모자·양말·장갑·넥타이 등), 가죽·모피 의류 등
	가방류	직물제·합성수지제·가죽제 가방 등
	안경류	안경,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등
	신발류	구두, 스포츠화, 등산화, 신발부분품 등
K-컬처	음반	음반 등
	서적	국문판·기타 서적, 아동용 그림책, 사전·백과사전 등
	오락용구	오락용 카드, 게임용구 등
	축제용품	콘서트 응원도구 등
	전자게임기	전자식 게임기, 비디오 게임용구 등
	포토카드류	포토카드 등 인쇄된 사진·서화, 엽서·인사용 카드 등
	영상물	녹화된 비디오, 영화용 필름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	잡지, 신문 등

참고2 대륙 · 지역 구분 기준

대륙	포함 국가·지역
아시아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홍콩
ASEAN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북미	그린란드, 미국, 버뮤다, 생피에르 미클롱, 캐나다
유럽	건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맨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바티칸 시국,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스발바르·얀마옌,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올란드 제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구), 이탈리아, 저지, 지브롤터,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페로 제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U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남미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그레나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구),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몬트세랫,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리남, 신트마르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앵귈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케이맨 제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큐라소,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클랜드 제도,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오세아니아	괌, 나우루, 노퍽섬,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마셜 제도, 미국령 해외 제도, 미드웨이섬(구),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북마리아나 제도, 사모아, 솔로몬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왈리스-푸투나 제도, 존스턴섬(구), 코코스 제도, 쿡 제도, 크리스마스섬, 키리바시,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핏케언 제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
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레위니옹,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마요트,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셸, 세인트헬레나,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영국령 인도양 지역, 우간다, 이집트, 자이르(구), 잠비아,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프랑스령 남방 지역

※ (구) 표시는 과거 통계에 남아 있는 옛 국가코드 기준이며, 남극 등 일부 지역은 대륙 집계에서 제외하고 수출 국가·지역 수에는 포함